

# 말씀의 샘

## 우선 순위 <창세기 12장 4~10절>

사람들은 저마다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흔히들 자식, 건강이, 젊은 남자에게는 성공, 인정, 승진등이, 젊은 여자에게는 외모, 매력... 등 저마다가 중요하게 추구하는 우선순위는 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 순위로 가지고 있는 지를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각자에게 우선순위는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는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다가 위기의 순간, 정말 어려운 순간, 또한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우리의 신앙과 직결됩니다.

오늘 저는 믿음 안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두 개의 우선순위의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함정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첫째, 하나님 우선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한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정제성을 심어준 것이 우선순위였는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우선순위를 흐트러뜨리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어떠한 것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만이 아닙니다. 3계명 내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4계명 안식일, 하나님의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며 가장 귀한 날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우선순위를 입각한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보면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는 혼돈, 공허, 흑암만이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 하루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성수는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며,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은 한 주를 시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점검 받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사업과 돈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공부와 우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12: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본토친척 아버지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공고롭게도 친척인 롯도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롯을 부르지 않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친자식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방땅에서 자식같은 롯만 버려두고 가기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100%의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함에 있어서 인간의 감정,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롯과 싸우고 롯이 소돔땅을 선택해서 가는 바람에, 오히려 롯을 챙기려고 했던 계획은 롯을 더 망가진 인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마 19: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에게 역시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와 복음이 그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표현은 진짜로 내다 버리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나님부터 선택하면 나머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둘째, 예배 우선의 삶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나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도착한 곳은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였습니다. '모레'는 히브리어 '지침, 교사'의 뜻을 가지고 있고 종종 '무당 또는 점쟁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는 구약에서 가나안 종교의 문란한 종교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호 4:12-13). 한 마디로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은 가나안 이방 토속제사들이 무질서하게 드러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기근이 닥칩니다. 불안, 염려,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환경으로 인해 예배보다 급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음에 예배드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 가족들의 입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을 묻고 애굽행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한 맘이 있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를 혹 빼앗길까, 그로 인해 자기 죽일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당당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굴하게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우선되지 않은 인생은 공허하며 혼돈합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집안에 애굽 여인 하갈이 들어오면서 집안에 더 큰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어난 재산 때문에 롯과의 분쟁도 있었습니다. 예배 없이 환경을 우선으로 결정하는 삶은 좋은 열매를 낳지 못합니다. 축복과 모든 영육간의 회복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8:30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비가 오지 않고 되는 게 하나도 없던 사막의 땅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배였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난 뒤, 얼마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가 그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욕의 경우도 재산이나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신앙에 우선이었음이 드러나고 확실해지니까 마귀의 시험은 끝나고 갑절의 복이 허락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2016년 10월 16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10. 23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요한복음 11장 38~44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